

### 日・中共間 商標協定交涉中

—兩政府 7월까지 매듭 目標—

日本特許廳과 中共海外貿易部는 商標相互保護協定締結을 協議중에 있으며 대체로 7월까지는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쪽에서 推進하고 있는 協定要旨는 保護方法, 不正競爭에 대한 權利者 救濟등에 主眼이 있으며 文案이 作成되면 外交루트를 통하여 署名段階에 들어갈 豫定이다.

이번의 상품협정이 이루어지면 工業所有權全般에 걸친 交涉이 進行될 것으로 推測되나 中共이 파리條約 (萬國工業所有權保護同盟: 81 個國 參與)에 加入하지 않고 있어 그리 쉬운 問題는 아니다.

중공은 현재까지 蘇聯등 19개국 과 상표에 관하여 個別協定을 맺고 있을 뿐이며 중공안에서의 公업소유권에 관한 法體系도 소련등 共產圈과 비슷한 發明者證制度만이 있고 國民에게는 實施權의 所有資格을 認定하지 않는다.

다만 發明이나 考案을 한 者에게 名譽權이나 褒賞金, 年金등을 政府가 支給하는 대신에 그 實施權은 政府의 소유로 獨占하게 된다. 發明者나 考案者가 出願하려면 반드시 公司나 人民公社를 통하여 하므로 名目上의 權利者는 出願機關이 되는 셈이다. ●

### 特許・技術移轉促進政策

—日 特許廳, 報告書 發表—

日本特許廳은 特許 및 技術移轉을 促進하기 위해 特許의 流通促進시스템과 技術移轉에 관한 報告書를 발표했다.

同報告書에 따르면 특허·기술의 流通量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1980 年에 이르던 적어도 156億圓으로

推定되므로 앞으로 특허·기술의 提供者와 導入希望者간의 交通整理機能을 맡을 流通機關간의 擴充強化가 切實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年間 工業所有權出願實態는 特許, 實用新案만도 30萬件을 넘고 있어 先發國인 美國이나 西獨

보다도 3倍以上, 프랑스나 英國보다는 6배를 넘고 있지만 活用實相은 微微하다는 것이다.

더우기 출원에 比한 權利化率은 50%, 그나마 外國에의 출원은 12%에 不過하다.

特許廳은 이러한 실상의 根本的인 對策으로서 解決하려는 것이 특허·기술이전의 촉진책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行政적으로는 各流通機關으로 하여금 中央센터의 設立, 각유통기관의 活動狀況掌握, 特許·技術流通關聯統計調査의 實施, 各유통기관의 기능·對象顧客層·情報量의 調整 및 各유통기관에 대한 指導, 監督, 支援을 掌管하는 直轄機關을 設置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특허청조사에 따른 특허유통의 形態는 특허만의 경우와 노우하우가 따를 때의 경우는 특허만의 경우가 전체의 70%, 權利의 讓渡와 實施權의 設定에서는 실시권의 설정이 壓倒的으로 많으며 件數로는 전체의 80~90%를 占하나 그 가운데 再實施權이 설정되는 例는 15% 정도이다. 또한 유통비에 代價가 支拂되지 않는 경우가 30%가 된다.

日本市場에서의 특허·실용신안의 유통실시료는 1契約當 平均 470 萬圓으로 추정되고 있다. ●

### 會員企業 메달리스트들의 面貌

#### 第23回 國際技能올림픽大會

지난 7月 네덜란드의 유트리히트에서 열린 第23回 國際技能올림픽大會에서 金 12, 銀 4, 銅 5등 21개의 메달과 5個部門의 大會長特賞을 받아 우리나라에 綜合優勝의 榮光을 안겨 준 全受賞者 가운데 本會 會員企業 入賞者들의 面貌는 다음

과 같다.

#### ◇ 金메달

- 宋亨鎭(金銀細工: (株)金星社)
- 李洪雨(機械製圖: 金星通信(株))
- 閔大烈(가스용접: 起亞產業(株))
- 金乙坤(旋盤: 起亞產業(株))

#### ◇ 銀메달

崔鍾洙(프레스金型: 金星通信(株))

#### ◇ 銅메달

金世煥(工業電子機器: (株)金星社)

- 李寬鎔(機械組立: 金星通信(株))
- 金鍾烈(精密機器製作: 金星通信(株))

#### ◇ 大會長特賞

李昌熙(屋內配線: (株)金星社)